

생태화와 전환마을운동(Ecologization and Transition Town Movement)

이상헌(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에 따르면, 근대화(modernization)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물을 계속 분리시켜가는 과정이다. 반면, 이와 대립되는 방식의 생태화(ecologization)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인위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고 보며, 실제로는 인간과 사물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밀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코스모스에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유니버스로의 전이를 추구해왔다면 생태화(ecologization)는 코스모그램(cosmogram), 멀티버스(multiverse)/플루리버스(pluriverse)를 추구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는 생태화를 배척할 수 있지만, 생태화는 근대화를 배척하지 않는다. 플루리버스 속에 존재하는 극히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례로서 인정할 뿐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주체의 의미연관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상정된 유니버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지적한 보편적이고 자율적 시장사회의 등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적 시장사회에서는 인간사회의 비참함과 불평등, 공동체성의 와해, 생태계의 파괴가 초래되고 있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하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나타난 여러 이중적 운동 중에서 전환마을 운동은 생태화의 중요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화의 한 형태로서 전환마을운동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야콥 폰 워스쿨(Jakob von Uexküll)의 환경세계(umwelt)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폰 워스쿨은 '각각'의 동물이 자기 주위에 일종의 거품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 거품은 주위에서 몇 가지 적절한 기호들을 추출해내는데, 그 기호들은 분명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연에는 대상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저 의미작용을 담지하는 주체들만 있다. 그런데 이 주체들은 동물이 거하는 이 세계 내에 있다는 뜻에서 동시에 객관적이다. 폰 워스쿨에게는 모든 생명체를 대변에 포괄할 수 있는 메타-수프라-슈퍼-오벨트 따위란 없다. 이러한 입장은 찰스 다윈의 방법론과 매우 유사하다. 다윈은 자연의 연속성 혹은 추상적 법칙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종들의 사소한 발명과 시도가 적응과 변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세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사의 목적이라거나, 초월적 원칙을 배제하고 개별적 사례들의 시도들이 얼마나 적응과 변이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태화의 한 사례로 전환마을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특정 장소의 인간들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우회(detour)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우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물들과 인간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그 결과 자신들의 환경세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composition)해왔는지를 드러내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마을운동이 자율적 시장사회에 대한 이중적 운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정적으로만 수행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cologization and Transition Town Movement

Sanghun Lee (Director, institutes of Green Transformation, Associate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how could the 'transition town movement' as one of double movements play a significant role for fixing problems from self-regulating market society. According to Bruno Latour, modernization is the process of separating human beings and things based on distinction of subject and object. However, ecologization is the process of showing the close connection of human beings and things. The modernization has sought to transit from cosmos which is vernacular and limited to some groups to universe which is universal and abstract. In contrast, ecologization has sought to recognize cosmograms, multiverse, and pluriverse. Based on Karl Polanyi's argument, I attribute the rise of universe to advent of universal and self-regulating market society. As is well known, under the self-regulating market society, misery and inequality, collapse of communities, and destruction of eco-system have mushroomed. Even,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has aggravated such tendency. Among double movements, 'transition town movement'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case of ecologization against complicated problems from modernization. To explain the transition town movement in terms of ecologization, this paper relies upon the terminology of 'Umbelt' coined by Jakob von Uexküll. The 'Umbelt' is different from universal circumstance. It is not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ere is no separate and independent environment without agencies. All environments are composed by subjects. Therefore, if we would like to evaluate transition town movement as case of ecologization based on the term, 'Umbelt', we have to show the complex and concrete detour of actions of agencies in transition towns, i.e., the organic composition of human beings and thing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wns movement. For this purpose, some examples of transition town movements will be reviewed in this paper.